

#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 제 목 : 2023년 3/4분기 중 동남권 경제 모니터링 결과\*

\* 한국은행 부산·울산·경남 3개 지역본부가 2023년 7~8월 중 모니터링한 최근 동남권 경제 동향 및 부산지역 관광산업 관련 현장리포트로서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2023년 9월호)에도 수록

### (동남권 경제 동향)

- 2023년 3/4분기 중 부·울·경 동남권 경기(생산 및 수요)는 2/4분기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현장리포트: 부산지역, 외국인 관광객 크게 증가)

- 최근 부산지역 외국인 관광객수가 크게 증가하여 6월 기준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월 대비 65% 수준으로 회복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붙 임: 1. 동남권 경제 동향  
2. 현장리포트: 부산지역, 외국인 관광객 크게 증가

문의처: 한국은행 부산본부 경제조사팀 과장 박승문

Tel: 051-240-3860

Fax: 051-240-3859

E-mail: bokbusan@bok.or.kr

“한국은행 부산본부의 보도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의 ‘지역본부-부산본부’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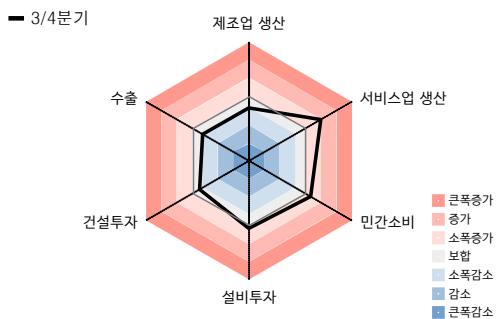
<붙임1>

요 약

[경기 개황]

- 2023년 3/4분기 중 동남권 경기는 전분기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제조업 생산은 전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증가
  - 수요 측면에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전분기에 비해 소폭 증가한 반면 건설투자는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

경기 레이더<sup>1)</sup>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생산]

- 제조업 생산은 조선, 금속가공, 석유정제가 증가한 반면 자동차 및 부품, 기계장비, 석유화학, 철강은 감소
-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업과 도소매업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숙박·음식점업과 부동산업이 증가

[수요]

- 민간소비는 재화 소비가 다소 줄었으나 서비스 소비가 늘면서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
- 설비투자는 자동차가 소폭 증가하고 석유정제, 석유화학, 철강·비철금속, 기계장비 및 조선이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여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
- 건설투자는 용도별로 주거용 건축이 증가하고 공업용 건축은 감소하였으며, 주체별로는 공공부분이 증가하였으나 민간부분이 감소하면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
- 수출은 선박, 석유제품은 증가하였으나 석유화학제품, 기계(수송기계 제외), 철강금속제품, 자동차 및 부품이 감소하여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

[고용]

- 7~8월 중 취업자수는 제조업 감소폭이 줄었으나 농림어업 및 건설업은 감소폭이 커지고 서비스업은 증가폭이 줄면서 전체 증가폭이 전분기보다 축소

[물가]

- 7~8월 중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가격 상승, 국제유가 하락세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수도 가격과 외식 등 개인서비스 가격의 오름폭이 줄면서 전분기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

# 동남권 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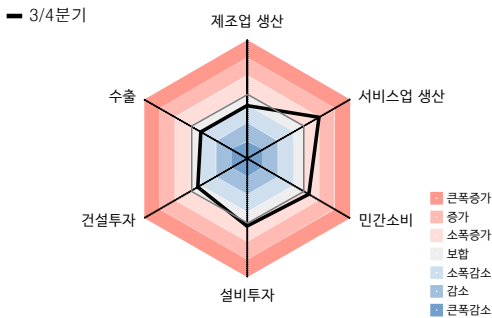
## (1) 개 황

### 동남권 경기 보합

2023년 3/4분기 중 동남권 경기는 전분기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의 경우 제조업은 전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은 소폭 증가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와 설비투자가 전분기에 비해 소폭 증가한 반면 건설투자는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고 수출은 소폭 감소하였다.

7~8월 중 취업자수 증가폭은 전분기보다 축소되었다. 소비자물가는 상승세 둔화 추세가 이어졌으며, 주택매매 및 전세 가격은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 경기 레이더<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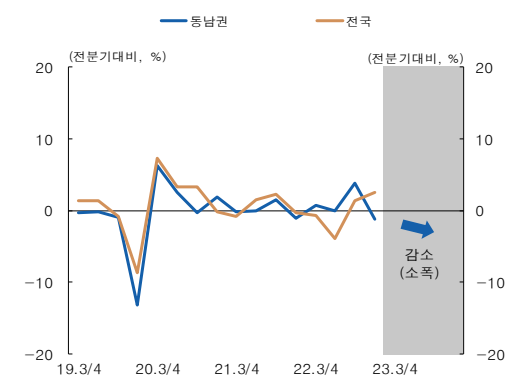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 (2) 생 산

### 제조업 생산 소폭 감소

3/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전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조선, 금속가공, 석유정제가 증가한 반면 자동차 및 부품, 기계장비, 석유화학, 철강은 감소하였다.

### 제조업 지역경기전망지수<sup>2)</sup>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조선은 기존 수주 물량의 건조가 지속되면서 전분기대비 증가하였고, 금속가공도 조선, 방산 등 전방산업의 호조로 증가하였다. 석유정제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항공유 등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업체의 정기보수도 종료되면서 생산이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자동차 및 부품은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sup>1)</sup>, 고금리 지속 등으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줄어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기계장비는 방산 부문에 일부 증가요인이 있었으나 수출이 줄면서 소폭 감소하였고, 석유화학도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철강은 국내외 건설업 부진 지속, 중국 경기

1)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출고가의 5.0% → 3.5%) 조치가 지난 6월 말 종료되었다.

회복 지연 등으로 감소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동남권의 향후 제조업 생산은 3/4분기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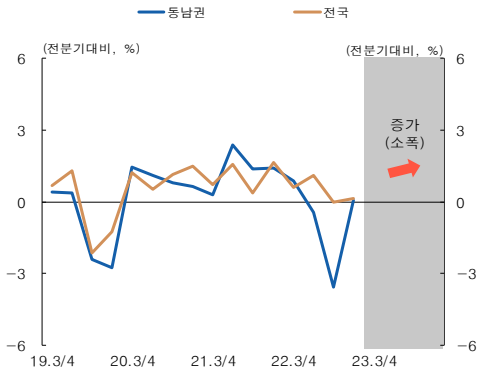
조선은 그간 꾸준히 늘어난 수주물량<sup>2)</sup>을 바탕으로 생산 증가가 이어질 전망이며, 금속가공도 조선업 등 관련 산업 호조로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석유정제는 정제마진 확대에 따라 수익성이 다소 개선되면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자동차 및 부품은 고금리 및 경기 부진 지속으로 신규 수요가 축소되면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은 건설업 부진과 중국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기계장비는 국내 설비투자 부진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화학도 글로벌 공급과잉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원료 자급률 상승으로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 서비스업 생산 소폭 증가

3/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과 부동산업이 증가하였으나 운수업과 도소매업은 소폭 감소하였다.

서비스업 지역경기전망지수<sup>1)</sup>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확실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숙박·음식점업은 외국인 관광객 등 지역 방문객수가 늘면서<sup>3)</sup> 증가하였다. 부동산업은 주택거래가 늘어나면서<sup>4)</sup> 전분기대비 증가하였다. 운수업은 수출입 감소로 부산항 컨테이너 수송물량이 감소 전환<sup>5)</sup>되면서 전분기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은 승용차 등 재화 소비가 줄면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3/4분기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숙박·음식점업은 중국의 단체관광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외국인 방문객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호전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의 경우에도 미분양 주택물량<sup>6)</sup>이 감소하는 등 시장여건이 나아지고 있어 회복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운수업은 수출입 물동량 회복이 지연되면서 이번 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소매업은 재화소비 부진이 이어

2) 동남권에 위치한 국내 대형 조선사(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화오션(舊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2023년 2/4분기 말 수주잔량은 3,207만CGT이며 2023년 중 777만CGT가 인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3) 7월 동남권 방문객수는 2/4분기(월평균)대비 8.2% 증가한 3,101만명을 기록하였다. 한편, 부산지역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현장리포트 「부산지역, 외국인 관광객 크게 증가」를 참고하기 바란다.  
 4) 7월 중 동남권 주택거래량은 12,672호로 2/4분기(월평균)대비 8.3% 증가하였다.(한국부동산원)  
 5) 부산항의 컨테이너 수출 및 환적 물량은 2/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하였으나, 7월에는 전년동월대비 5.9% 감소하였다.(부산항만공사)  
 6) 7월 중 동남권 주택 미분양 물량은 9,095호로 2/4분기 월평균 11,031호보다 17.6% 감소하였다.(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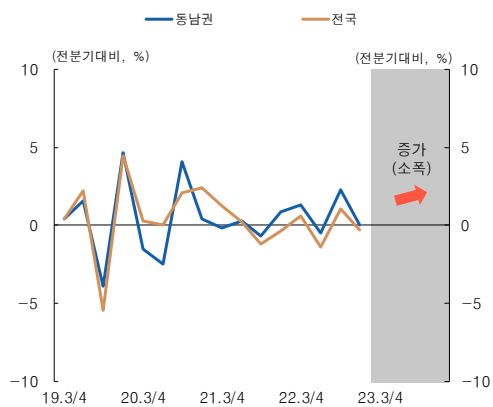
지면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3) 수 요

#### 민간소비 소폭 증가

3/4분기 중 민간소비는 재화 소비가 다소 줄었으나 서비스 소비가 늘면서 전분기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소매판매액지수<sup>12)</sup>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 중 민간 소비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권역별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재화 소비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내구재는 가전제품 등의 판매가 늘었으나<sup>7)</sup>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승용차 판매가 크게 줄면서 전분기대비 감소하였다. 비내구재는 차량용 연료와 음식료품 등이 줄면서<sup>8)</sup> 감소하였다. 한편, 준내구재는 의복 판매 등이 줄면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sup>9)</sup>

서비스 소비는 관광수요 증가로 여행 및 숙박·음식점 지출<sup>10)</sup>이 확대된 가운데 자동차정비<sup>11)</sup> 등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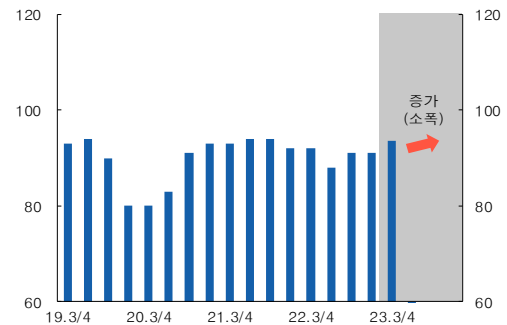
인서비스 지출도 늘어나면서 전분기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민간소비는 3/4분기 수준의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재화 소비의 경우 승용차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당분간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관광 등 서비스 소비가 증가하면서 전체 민간소비는 완만히 증가할 전망이다.

#### 설비투자 소폭 증가

3/4분기 중 설비투자는 전분기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자동차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석유정제·석유화학, 철강·비철금속, 기계장비 및 조선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비투자실행BSI<sup>1)</sup>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 중 설비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7월 및 8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자동차는 신규공장 건설<sup>12)</sup> 등으로 설비투자가 증가하였다. 반면 석유정제·석유화학은 일부 신규공장 건설 및 생산설비 증설이 추진<sup>13)</sup>되고 있으나

7) 7월 중 동남권의 가전제품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기준)은 2/4분기(월평균)대비 29.2% 증가하였으나 자동차판매는 21.5% 감소하였다.  
 8) 7월 중 동남권의 연료판매 및 음식료품 카드사용액은 2/4분기대비 각각 7.2%, 6.2% 감소하였다.  
 9) 7월 중 동남권의 의복 카드사용액은 2/4분기대비 각각 12.3% 감소하였다.  
 10) 7월 중 동남권의 여행, 숙박 및 요식업소 카드사용액은 2/4분기대비 각각 3.6%, 11.3% 및 2.2% 증가하였다.  
 11) 7월 중 동남권의 자동차정비 카드사용액은 2/4분기대비 6.9% 증가하였다.  
 12) 나노팀 주식회사는 200억원 규모의 자동차 부품 울산공장 신설에 착공하였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전반적인 신규투자 위축이 지속되면서 지난 분기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철강·비철금속은 건설업 수요 부진이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신사업 부문 설비 증설<sup>14)</sup>이 이루어지면서 지난 분기와 보합 수준을 보였다. 조선<sup>15)</sup>과 기계장비<sup>16)</sup>도 설비 교체 및 확충을 위한 투자가 지난 분기 수준에서 지속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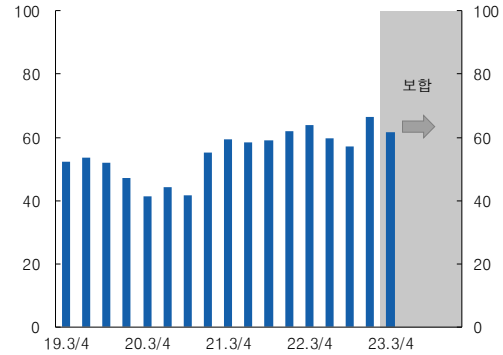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설비투자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자동차는 전기차 생산 관련 신규투자<sup>17)</sup>가 본격화됨에 따라 소폭 증가가 예상된다. 석유정제·석유화학 및 철강·비철금속은 일부 신사업<sup>18)</sup> 관련 투자에도 불구하고 업황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번 분기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조선과 기계장비도 설비 보완 및 확충을 위한 투자가 지속되며 3/4분기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건설투자 보합

3/4분기 중 건설투자는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건축 착공면적<sup>19)</sup>은 용도별로 주거용 건축이 증가하고 공업용 건축은 감소하였다. 주체별로는 공공부문이 발주한 건축 착공면적이 증가하였으나 민간 발주 면적은 감소하였다.

### 건설업 업황BSI<sup>1)</sup>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 중 건설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7월 및 8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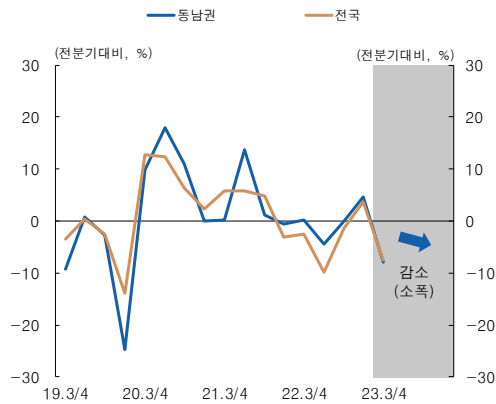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투자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지표인 건설수주<sup>20)</sup>를 보면 공공부문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 수주가 크게 줄면서 전체 수주 면적은 감소하였다. 건축허가도 주거용 및 상업용 건축을 중심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출 소폭 감소

3/4분기 중 수출(일평균)은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sup>21)</sup> 품목별로 보면 선박, 석유제품 등은 증가하였으나 석유화학 제품, 기계(수송기계 제외), 철강금속제품, 자동차 및 부품 등이 감소하였다.

13) 울산시는 석유화학단지내 지하에 매설된 각종 배관을 지상으로 올려 한데 묶는 통합파이프랙 구축사업을 본격화하였다.  
 14) 고려아연은 1조원 규모의 이차전지 소재 생산공장(전해동박 생산공장, 전구체 공장) 증설을 위한 투자를 진행중이며, 후성은 8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전해질 생산시설 신설을 추진중이다.  
 15) 한화오션(舊 대우조선해양)은 2023년 중 2,424억원 규모로 생산체계 최적화 사업을 진행중이며 HD현대중공업은 VOCs 저감설비 및 도장 공장 공조설비, 노후시설 교체 등에 대한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16)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창원 공장에 2022년 6월부터 2023년 말까지 253억원 규모의 생산 및 지원설비 신설 투자를 진행중이다.  
 17) 현대차가 지난해 발표한 2조원 규모의 전기차 울산 신공장 설립의 허가 절차가 완료되어 4/4분기 중 착공 예정이다.  
 18) SK지오센트릭은 202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페플라스틱 열분해 공장(6.6만톤/년) 설립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SK가스는 울산신항 항만 배후단지 에 클린에너지 복합단지 인프라시설을 건설하는 투자(1,781억 규모)를 진행 중이다. 롯데이네오스화학도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초산비닐 3공장(25만톤/년) 증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19) 7월 중 동남권 전체 착공면적은 63만㎡로 2/4분기(월평균)대비 0.8% 증가하였으며 용도별로는 주거용과 상업용은 각각 31.4%, 0.9% 증가하였고 공업용은 33.4% 감소하였다. 주체별로는 민간은 12.3% 감소, 공공은 191.8% 증가하였다.(국토교통부)  
 20) 7월 중 동남권 건설수주액은 2.0조원으로 2/4분기(월평균)대비 12.2% 감소하였다. 부문별로는 공공부문이 180.9% 증가하였으나 민간부문은 1.2조원으로 26.3% 감소하였다.(국토교통부)  
 21) 7~8월 중 동남권의 일평균 수출액(4.9억달러)은 전분기(5.3억달러)대비 8.2% 감소하였다.(한국무역협회)

수출(일평균)<sup>1)</sup>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 중 수출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선 그래프는 7월 및 8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선박은 2021년 수주 호황기 수주분의 인도가 본격화되면서 증가세를 지속하였고, 석유제품은 단가 상승<sup>22)</sup>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기계는 산업기계를 중심으로 소폭 감소<sup>23)</sup>하였다. 석유화학 제품도 글로벌 수요 둔화로 감소<sup>24)</sup>하였으며, 자동차 및 부품은 주요국 경기 둔화 및 해외 전기차 시장 경쟁 심화 등으로 감소 전환하였다.<sup>25)</sup> 철강금속제품은 미국, 인도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요가 크게 둔화되고 수출단가도 하락하면서 감소하였다.<sup>26)</sup>

모니터링 결과 향후 수출은 이번 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선박은 충분한 수주물량과 높아진 선가, 인력여건 개선<sup>27)</sup> 등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 흐름이 예상된다. 반면, 철강금속제품 및 기계는 글로벌 중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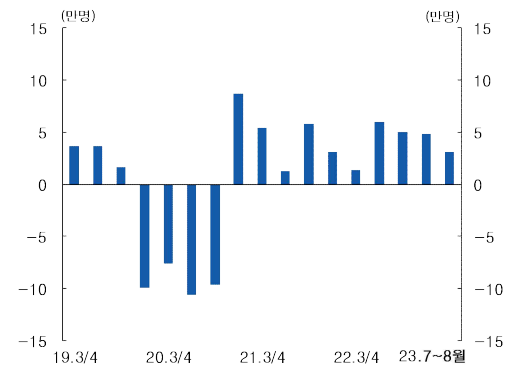
수요 감소 및 국내 설비투자 부진에 따라, 자동차 및 부품은 중국 등 주요국 수입 수요 둔화가 지속되면서 감소할 전망이다.

(4) 고용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

7~8월 중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3.1만명 증가하여 전분기(4.8만명)보다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 감소폭이 줄었으나 농림어업 및 건설업은 감소폭이 확대되고 서비스업은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근로자(3.5만명)를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자영업자(-2.4만명) 등 비임금근로자 감소폭도 전분기보다 확대되었다. 지역별로는 부산, 울산 및 경남 모두 취업자수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취업자수 증가<sup>1)</sup>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22) WTI 유가는 6월 말 배럴당 70.6달러에서 8월 말 배럴당 81.6달러로 상승하였다.

23) 7~8월 중 동남권 기계(수송기계 제외) 수출액은 산업기계(MTI72 -13.7%), 기타기계류(MTI79 -17.2%) 등을 중심으로 전분기대비 8.5% 감소하였다.

24) 7~8월 동남권 석유화학제품(MTI 21)은 18.1% 감소하였다.

25) 7~8월 중 동남권 자동차 및 부품(MTI 741, 742) 수출액은 전분기대비 12.9% 감소(자동차 -13.6%, 자동차부품 -9.1%)하였다.

26) 7~8월 중 동남권 철강금속제품(MTI 6)은 제품단가가 전분기대비 4.6% 하락한 가운데, 대(對) 미국 및 인도 수출액은 전분기대비 각각 9.0%, 8.6%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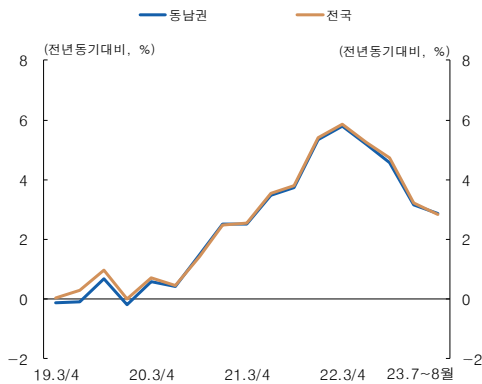
27)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2023년 상반기에 국내인력 및 외국인인력(기능인력 E-7 및 저숙련인력 E-9) 약 10,000명을 국내 조선산업에 투입하였다고 밝혔으며, 이는 2023년 중 필요인력(14,000명 전망)의 70% 이상을 충원한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 (5)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 소비자물가 오름세 둔화

7~8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2.9%로 전분기(3.1%)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이는 집중호우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국제유가 하락세 둔화<sup>28)</sup> 등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수도 가격과 외식 등 개인서비스 가격의 오름폭이 줄어든 데 기인한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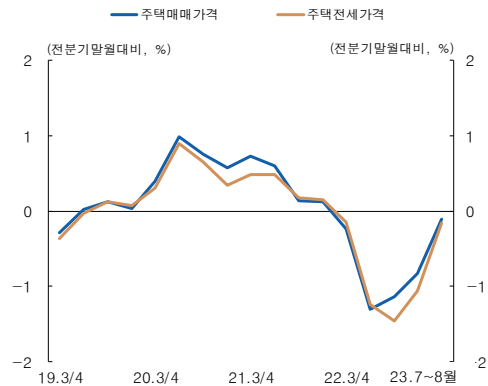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하락폭 축소

7~8월 중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률은 각각 전분기말월대비 0.11% 및 0.16% 하락하면서 2/4분기(-0.37%, -0.46%)에 비해 하락폭이 더욱 축소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 울산 및 경남 모두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하락폭이 줄어든 가운데 경남지역에서 하락폭 축소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주택매매 및 전세 수급지수도 7월 중 86.3과 88.2로 나타나 전분기(85.5, 87.3)보다 높아졌다.

####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sup>1)</sup>



주: 1) 전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2) 한국부동산원의 표본재설계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가격조사일이 월 중에서 월 말로 변경  
자료: 한국부동산원

28)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2023년 2/4분기 중 -28.5%에서 7~8월 중 -17.9%로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석유류 가격도 2023년 2/4분기에 비해 하락폭이 축소(-20.2% → -19.2%)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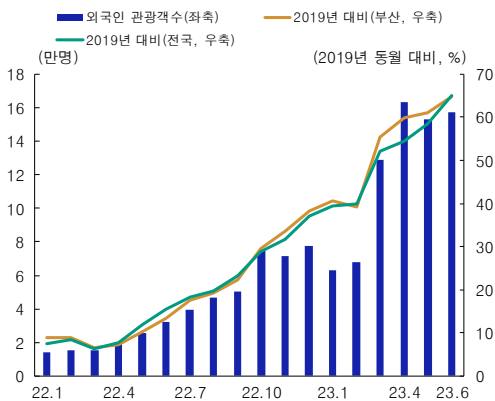
<붙임2>

**현장리포트**

**부산지역, 외국인 관광객 크게 증가**  
**부산본부 박승문 과장, 천지현 청년인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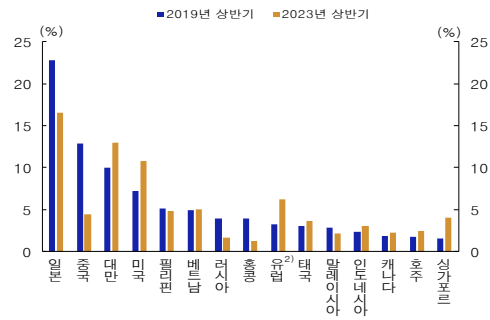
최근 부산지역의 외국인 관광객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일 기간과 비교하면, 금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55%, 6월 기준으로는 65%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관광객 비중의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비중이 가장 큰 일본인 관광객의 비중도 상당폭 줄어들었다. 반면, 대만, 미국, 유럽의 관광객 비중은 늘어나 부산을 찾는 관광객의 구성이 다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부산지역 외국인 관광객수**



자료: 부산관광공사

**국적별<sup>1)</sup> 관광객 비중**



주: 1) 2019년 상반기 기준 상위 15개국 2) 영국, 프랑스, 독일  
 자료: 부산관광공사

외국인 관광객수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가 대폭 완화된 가운데 그동안 크게 줄어들었던 항공 및 선박의 국제 운항편이 상당부분 회복된 데 기인한다.

해외백신 접종자 의무 격리가 면제된 2022년 4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입국자에 대해 음성확인서 요구가 중단된 2022년 10월 이후 크게 늘어났다.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2023년 1월 중국 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 19 검사 의무를 다시 부과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3월 관련 의무가 해제되면서 다시 증가하였다.

**외국인 관광객 관련 주요 방역조치**

시 점	주요 방역조치
20.4월	- 해외입국자 14일간 시설 및 자기격리
21.11월	-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10일로 축소
22.2월	-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7일로 축소
4월	- 해외 백신접종자 의무 격리 면제
6월	-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 격리 전면 해제
9월	- 입국 전 음성확인서 요구 중단
10월	- 입국 후 음성확인서 요구 중단
23.1월	- 중국 발 입국자 입국 전 음성확인서 및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
3월	- 중국 발 입국자 입국 전 음성확인서 및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 해제
6월	- 입국 후 3일 내 PCR 검사 권고 중단 - 확진자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

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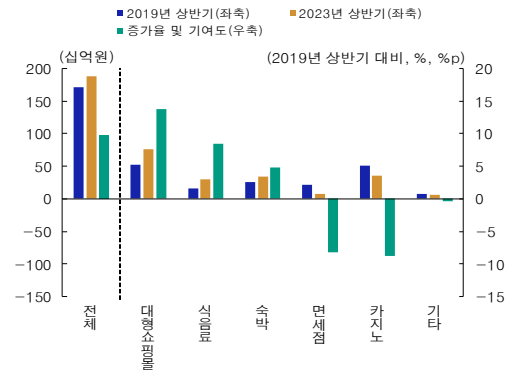
항공 및 선박 운항도 증가하였다. 김해공항 국제선 항공편의 경우 2023년 7월 현재 3천여편으로 2019년 동월(5천 7백여편)의 57%까지 회복되었다. 특히 대만이 88%(411편)로 높은 회복률을 보이면서 관광객수 증가를 이끌었다.<sup>1)</sup> 부산항 여객 터미널을 이용하는 선박은 후쿠오카 노선이 2022년 11월부터, 대마도 노선은 2023년 2월부터 재개되어 2023년 7월 현재 입출항 횟수가 2019년 7월의 51%(239회) 수준으로 늘어났다. 2022년 8월부터 재개된 크루즈 선박 입출항도 2023년 1~7월 중 108편으로 2019년 동 기간의 86%에 달하고 있다.

부산지역의 외국인 관광객수 증가는 외국인 소비의 증가로 이어졌다. 신용카드 데이터<sup>2)</sup>를 통해 부산지역의 외국인 관광 지출액을 살펴보면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9.9% 증가하였다. 항목별로 보면 백화점, 아울렛 등 대형 쇼핑몰과 식음료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외국인 관광지출 증가를 견인하였다. 반면 면세점, 카지노 등에 대한 지출은 감소하였다.

2019년 부산 관광산업동향조사<sup>3)</sup>에 따르면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지출액은 전체 역내 관광 지출액의 11%를 차지하였고 1인당 평균 지출액도 내국인에 비해 19%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여행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지역내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계수도 높은 편<sup>4)</sup>이어서 최근 외

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가 부산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의 부산지역 관광 지출액<sup>1)</sup>



주: 1) 해외발행 신용카드의 관광업종 결제금액 기준  
자료: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8월부터는 중국의 한국 단체여행이 허용되면서 그동안 회복이 더뎠던 중국인 관광객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맞추어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부산지역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편의를 높일 수 있는 Visit Busan Pass<sup>5)</sup>를 8월부터 정식 출시하는 한편,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마케팅, 외국 관광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팸 투어<sup>6)</sup>(Familiarization Tour)’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1) 김해공항의 취항 국가별 국제선 회복률은 2023년 7월을 기준으로 2019년 동월대비 몽골(133.3%, 76편), 베트남(97.3%, 676편), 대만(88.4%, 411편), 싱가포르(84.1%, 53편), 필리핀(77.9%, 258편), 태국(63.4%, 192편), 일본(54.5%, 1145편) 순이다. 몽골의 경우 전체 편수가 많지 않고 베트남은 내국인의 해외 여행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대만에 비해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서 제공하는 외국인 신용카드 지출액(해외발행카드로 결제된 금액)을 이용하였다.

3) 내국인 지출액은 신한카드 지출액과 동 카드사의 시장점유율 등을 이용하여 추정한 수치이며 외국인 지출액은 VISA, Master, American Express, JCB 지출 자료와 중국 은행카드 지출액을 반영한 수치이다. 동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 2019년 기준 전체 부산방문 관광객 신용카드 지출액 4조 5,605억원 가운데 외국인 지출액은 5,081억원으로 11.1%를 차지하였다. 한편, 외국인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신용카드 지출액은 18만 9천원으로 내국인의 15만 9천원에 비해 18.9%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부산광역시)

4) 부산의 숙박·음식점업 비중(2021년 GRDP 기준)은 2.7%로 17개 시도중 제주(6.6%), 강원(3.9%)에 이어 세 번째이고 숙박서비스업의 지역내 부가가치유발계수(2015년 지역 산업연관표)는 0.71로 서울(0.72)에 이어 두 번째, 생산유발계수는 1.30으로 경기(1.36), 서울(1.32)에 이어 세 번째이다.

5)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자유이용권형 관광패스로 권중에 따라 24시간 또는 48시간 내 유료 관광시설 30개소에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 충전형 교통카드 기능도 탑재되어 있다.

6) 기자, 여행기고가 등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열고 지역 관광지를 홍보하는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 별첨 >

동남권

(전년동기대비, %)

	2022		2023						
	3/4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8월
제조업 생산 <sup>1)</sup>	3.7	1.4	0.7	-2.1 <sup>P</sup>	-3.1	-2.6	-0.6 <sup>P</sup>	-3.4 <sup>P</sup>	..
서비스업 생산 <sup>2)</sup>	7.3	4.9	5.3	1.1	—	—	—	—	—
비제조업 매출BSI <sup>3)</sup>	80	76	72	78	77	81	75	74	75
컨테이너 처리량	-2.8	-5.3	0.8	3.5	6.0	0.6	4.1	-5.8	..
소매판매액지수 <sup>2)</sup>	0.9	1.4	3.2	3.2 <sup>P</sup>	—	—	—	—	—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sup>2)</sup>	4.8	0.3	2.2	1.6 <sup>P</sup>	3.2	0.5	1.0 <sup>P</sup>	2.0 <sup>P</sup>	..
제조업 설비투자실행BSI <sup>3)</sup>	92	88	91	91	90	89	93	94	93
건설업 업황BSI <sup>3)</sup>	62	64	60	57	67	66	66	60	63
수출 <sup>4)</sup>	15.6	-2.8	-1.0	-1.8	-3.8	-9.3	9.2	-16.8	2.1
취업자수 증가 <sup>5)6)</sup>	1.4	6.1	5.1	4.8	6.0	3.7	4.7	4.3	1.8
(비농림어업)	(-0.5)	(4.9)	(4.8)	(5.9)	(6.5)	(5.0)	(6.1)	(6.2)	(3.6)
고용률 <sup>6)</sup>	59.5	59.4	58.8	60.4	60.1	60.5	60.6	60.4	60.0
소비자물가	5.8	5.2	4.6	3.1	3.5	3.3	2.7	2.3	3.4
주택매매가격 <sup>7)</sup>	-0.7	-3.9	-3.4	-1.1	-0.6	-0.3	-0.2	-0.1	-0.1
주택전세가격 <sup>7)</sup>	-0.4	-3.7	-4.4	-1.4	-0.6	-0.5	-0.3	-0.2	-0.1
기업자금사정BSI <sup>3)</sup>	74	74	72	72	69	68	75	77	77

주: 1) 원계열(2020=100) 기준 2) 불변지수(2020=100) 기준 3) 지수(기준치=100) 4) 명목금액(미 달러) 기준 5) 만명  
 6) 분기 수치는 기간 중 월평균 7) 전분기말월대비(단, 월 자료는 전월대비), 한국부동산원의 표본재실계에 따라 2021.7월부터 가격조사일이 월중에서 월말로 변경

부산

(전년동기대비, %)

	2022		2023						
	3/4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8월
제조업 생산 <sup>1)</sup>	14.1	7.2	-0.9	-3.9 <sup>P</sup>	-1.3	-6.3	-4.1 <sup>P</sup>	-17.8 <sup>P</sup>	..
서비스업 생산 <sup>2)</sup>	5.9	3.9	4.3	1.2	—	—	—	—	—
비제조업 매출BSI <sup>3)</sup>	80	76	72	78	81	82	75	75	77
컨테이너 처리량	-2.5	-5.2	1.0	3.5	6.2	0.4	4.1	-5.9	..
소매판매액지수 <sup>2)</sup>	-0.6	-1.9	4.1	4.6 <sup>P</sup>	—	—	—	—	—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sup>2)</sup>	5.7	-0.3	-0.3	0.3 <sup>P</sup>	2.3	-0.3	-1.4 <sup>P</sup>	-1.1 <sup>P</sup>	..
제조업 설비투자실행BSI <sup>3)</sup>	97	93	93	97	96	96	98	97	97
건설업 업황BSI <sup>3)</sup>	65	57	59	70	67	72	70	64	59
수출 <sup>4)</sup>	7.8	-6.9	-6.7	-5.2	-16.5	-1.9	5.4	-20.0	5.2
취업자수 증가 <sup>5)6)</sup>	1.5	3.3	3.4	1.6	3.2	0.8	0.8	1.5	-0.3
(비농림어업)	(0.8)	(2.8)	(3.1)	(1.3)	(3.1)	(0.6)	(0.1)	(0.8)	(-0.9)
고용률 <sup>6)</sup>	57.8	57.7	57.2	57.9	57.8	58.0	57.8	58.2	58.0
소비자물가	5.5	5.0	4.6	3.3	3.7	3.4	2.8	2.6	3.4
주택매매가격 <sup>7)</sup>	-0.9	-4.1	-4.3	-1.4	-0.7	-0.5	-0.3	-0.2	-0.2
주택전세가격 <sup>7)</sup>	-0.8	-4.4	-5.5	-1.6	-0.8	-0.5	-0.3	-0.3	-0.2
기업자금사정BSI <sup>3)</sup>	75	78	75	78	77	78	78	81	80

주: 1) 원계열(2020=100) 기준 2) 불변지수(2020=100) 기준 3) 지수(기준치=100) 4) 명목금액(미 달러) 기준 5) 만명  
 6) 분기 수치는 기간 중 월평균 7) 전분기말월대비(단, 월 자료는 전월대비), 한국부동산원의 표본재실계에 따라 2021.7월부터 가격조사일이 월중에서 월말로 변경